

溪堂 鄭梅燦의 학문 성향과 한시 고찰

김 현 진*

차 례

1. 머리말
2. 생애와 학문 성향
3. 한시에 투영된 사유와 흥취
4.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기 전라북도 고창지역에서 활동한 溪堂 鄭梅燦(1759~1831)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문학적 면모를 조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회찬은 과거에 실패한 뒤, 계당리에 溪堂亭을 지어 은거하면서 가학을 계승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족보 편수에 정력을 쏟아 가문의 명성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十母」와 「十必」로 자손들을 경계시키며 處士의 삶을 살았다.

그의 학문은 가학과 사승을 통한 우암 학맥 연원, 理氣의 율곡설 계승, 경세치용의 실학적 사고 발전 등 3가지 면에서 기호 노론 계열과 실학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리와 기를 합일적 관계로 파악한 정회찬의 성리설은 리와 기의 혼일적 차원에서 理—元論을 주장하는 노사 기정진의 성리설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田制 등에 대한 의견은 三政의 문란을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회찬은 이러한 삶과 학문을 문학에도 투영하였다. 그가 漢詩에 투영한 사유와 흥취는 3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明德, 心, 性, 情 등 성리학 명제에 대한 성찰과 사유 발현으로, 수양에 의한 철저한 도덕적 실천을 보여준다. 둘째, 계당팔경에 담은 처사 삶의 흥취로, 西學과 청나라 문물 유입의 시대 흐름 속에서 그는 은거지 계당의 팔경을 읊어 학문 침잠으로 세도부지의 사명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도의 체찰을 징험하기도 한다. 셋째, 발상 전환의 재치와 유희로, 뜻밖의 사건이나 난감한 상황에서도 분노 대신 재치 있고 인간미 넘치는 유머를 보인다.

핵심어 : 정회찬(鄭梅燦), 계당(溪堂), 계당정(溪堂亭), 고창(高敞), 기정진(奇正鎭), 노화설(爐火說), 계당팔영(溪堂八詠)

*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기 조선은, 사회적으로는 중인 계층의 신분 상승과 상민의 경제적 부상으로 전통적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 등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왕권은 약화 되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져 田政·軍政·還穀의 이른바 三政이 문란해졌으며, 홍경래의 난(1811) 등의 민란도 발생하였다. 학문적으로는 實學이 대두되어 사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민생을 위한 학문과 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한편 주자학 중심으로 발전한 性理學은 人物性 同異에 대한 견해 차이로 湖洛論爭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학파 또는 당파로 발전하며 후대 학자들의 지지와 비판이 일어났는데, 蘆沙 奇正鎭(1798~1879)은 양론을 모두 비판하며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학문의 흐름 속에서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溪堂亭을 지어 은거하며 處士의 삶을 산 溪堂 鄭梅燦(1759~1831)이 있다. 그의 가학과 사승은 모두 尤庵 宋時烈의 학맥과 닿아있다. 계당은 또 스승 사후 성리학에 침잠하여 자신의 학설을 남겼고, 삼정의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였으며, 수많은 한시도 남겼다. 특히 그의 성리설은 전라도 장성(長城) 출신의 기정진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사는 23세(1820) 때부터 고창의 靈鷲山[이칭: 취령산, 축령산, 문수산, 청량산] 文殊寺 南庵에서 피서하며 그곳의 학인들과 일찍부터 교류했고, 거기서 46세(1843) 때 자신의 성리설을 담은 『納涼私議』 초고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계다가 노사는 『납량사의』 초고 완성 15년 뒤인 1858년 9월 10일 정회찬의 문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지었다. 이때 노사는 정회찬의 성리설을 보았고, 이후 77세 때인 1874년 『납량사의』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회찬의 성리설은 노사의 사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회찬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그가 은거했던 계당정을 소개하면서 그의 생애, 가학, 사승에 대한 언급과 한시 작품 중 「계당팔영」 제목 소개 및 『계당집』 발문을 1858년 노사가 썼다는 사실을 밝힌 게 있다.¹⁾ 또 그의 증손자 小蠹 鄭

1) 이형성, 「奇正鎭의 고창지역 門人과 遺物遺蹟에 대한 一攷」, 『東洋古典研究』 79, 동양고전학회, 2020, 208~209쪽 참조.

河源(1827~1902)의 생애에서 가학을 설명할 적에 계당의 학맥과 자손들을 위한 遺戒를 언급한 것이 있다.²⁾

이에 보고는 7권 3책의 『溪堂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정회찬의 학문 성향과 한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회찬의 생애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활동 이력과 학문 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그것과 한시 문학의 유기적 연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 결과물은 크게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기 고창지역 유학자의 학문과 활동 상황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작게는 고창지역 旴州鄭氏 가문 인물의 활동 이력과 문학적 면모 파악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생애와 학문 성향

2.1 처사의 삶 영역

鄭悔燦의 초명은 鄭亨基, 자는 晦叔, 호는 溪堂, 본관은 旴陽이다. 1759년(기묘, 영조 35) 9월 18일 현 전북 고창군 星松面 槐峙里[槐嶺]의 대를 이어 살아온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계를 보면, 대제학을 지낸 鄭時陽이 비조이다. 10世는 고려 후기 菁川君에 봉해진 鄭乙輔이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온 증시조는 旴陽君에 봉해진 13세 鄭璜이다. 그가 영광군 주산리³⁾로 귀양 온 이후부터 자손들이 그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조에 들어와 고창 입향조는 20세 수군절도사 鄭宗舜이다. 그는 旴州李氏와 혼인하면서 아내의 고향인 고창으로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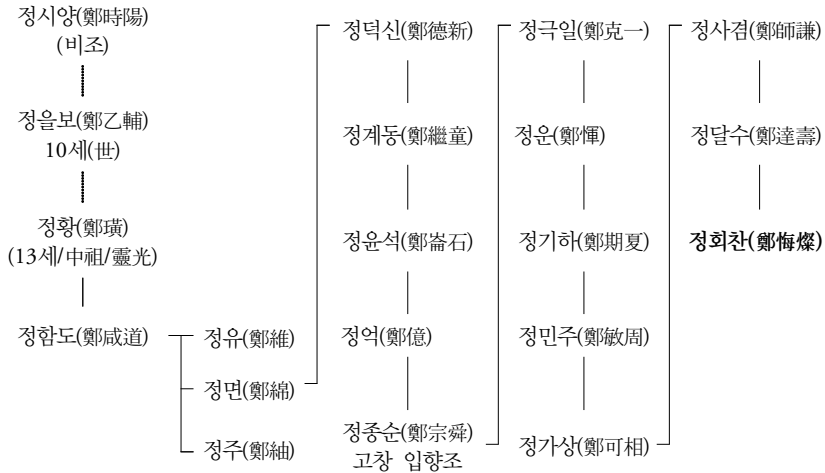
계당의 고조부는 鄭敏周(1642~1728)이다. 그는 학식이 깊고 행실이 돈독하였으며, 우애가 돈독하였다. 그의 6형제가 6그루 소나무 아래에 지은 六松亭에서 학문을 강론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를 六松處士라고 일컫는다. 증조부는 聖士齋 鄭可相이고, 조부는 桂陽 鄭師謙(1688~1730)이다. 부친 鄭達壽는 타고난 자질이 순박하고 신실하였으며, 몸소 물고기 잡고 나무하며 아버이 봉양에

2) 이형성, 「小蠹 鄭河源의 生涯와 太極動靜에 대한 蘆沙學 繼承性 一攷」, 『은지논총』 75, 2023, 239쪽 참조.

3) 현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이다.

정성을 다하였다. 보고 느낀 당시 사람들이 “孝友色漁樵子”라 일컬었다. 모친 高興柳氏는 柳文璨의 딸이다. 사헌부 집의를 지낸 柳希律의 6세손이다.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겨, 고을에서 칭송받았다.

〈계당 정회찬 가계도〉



정회찬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랐다. 13세 때(1771) 9촌 족속 頤齋 鄭仁壽(1711~1780)의 문하에 들어가서 약 9년 정도 수학하였다. 훗날 그는 乾山에 있는 이재 묘소와 초당 옛터를 방문했을 적에 ‘나의 스승[吾師]⁴⁾’라고 하며, 사제간의 情誼를 표출하였다. 이런 점은 계당이 스승 이재가 남긴 지팡이를 본 손 鄭文賢에게 돌려줄 적에 지은 시에서도 나타난다.

지팡이에 스승이 있어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고	物有其人不敢專
제자는 주인에게 전해 줄 때를 기다렸네	門人留待主人傳
돌아가신 선생의 자취를 오늘도 탄식하는데	百年仙躡嗟今日
정강이를 치던 흔적 남아 아직도 완연하네	叩脛遺痕尙宛然 ⁵⁾

4) 『溪堂集』卷2, 「過乾山 謁免叔頤齋公墓 歸草堂故墟 感題」. 7언절구 중 1구와 2구. “古岵蒼茫白日紅, 吾師其下萬年封.”

5) 『溪堂集』卷2, 「謹以師父頤齋公遺杖 還贈本孫文賢」.

계당은 장성한 뒤 과거시험에 응시했으나 여러 차례 급제하지 못하자, 마침내 현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계당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종일 시를 읊조리고 후학들을 장려하였다. 당시 그는 계당정 주변의 8가지 풍광에 대한 정취를 「溪堂八詠」이란 제목으로 읊었다. 계당 사후 노사 기정진은 계당의 원운을 따라 계당팔영 차운시를 지었다.⁶⁾ 노사가 계당정을 내왕한 계기는 61세 때(1858) 계당의 유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지어 주었으며,⁷⁾ 그의 문인이자 계당의 증손자인 小蠹 鄭河源(1812~1883)과의 인연을 비롯해 육송처사 정민주에 대한 碑陰記를 지어 준 데 있다.⁸⁾

계당은 또 청정하고 소박한[淸素] 가풍을 본받으려 하였고, 아버이를 봉양할 적에는 정성을 다하며 “효는 감히 바라지 않고, 인정과 도리상 당연한 바이다.”⁹⁾라고 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해서는 한결같이 예제를 따르며, 노쇠하다고 그만둔 적이 없었다.

계당은 자제들을 가르칠 적에 반드시 충효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十卍]’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十必]’를 경계로 제시하였다.¹⁰⁾ 이는 자신이 몸소 실천한 이른바 身敎, 즉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르침이다.

또 계당은 평소 족보 편수에 정력을 쏟았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 거의 흩어져 잃어버린 족보를 京鄕에서 널리 채집하고,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고찰하고, 읍지를 참조하고, 각 가문 족보의 같고 다른의 논쟁 부분을 증명하여 8년 만에 족보를 완성하였다. 그동안 그는 노심초사하며 분주했는데, 그 일면을 다음 시에서 엿볼 수 있다.

한 가문의 족보로 팔 년째 객이라

一譜八年客

6) 『蘆沙文集』卷2, 「鄭氏溪堂八詠【曩時諸名勝多和者, 忘醜步次. 非敢曰, 道得溪堂公意中事, 聊以塞希淸之求.】」.

『溪堂集』卷7, 附錄, 「追附蘆沙先生奇正鎮【曩時諸名勝多和者, 忘醜步次. 非敢曰, 道得溪堂公意中事, 聊以塞希淸之求.】」.

7) 『溪堂集』跋. “崇禎四戊午重陽翌日, 幸州奇正鎮謹書.”

8) 『蘆沙文集』卷27, 墓表, 「六松鄭公碑陰記」.

9) 『溪堂集』, 鄭龜奎 撰, 「家狀」. “孝不敢望, 情所當然.”

10) 『溪堂集』卷4, 雜著, 「十卍字遺戒」. “毋違父母. 毋鬪兄弟. 毋鬪宗族. 毋失隣里. 毋虐婢僕. 毋好酒色. 毋好鬪狠. 毋好詞訟. 毋好博奕. 毋好談諧.”

『溪堂集』卷4, 雜著, 「十必字遺戒」. “必謹祭祀. 必敬尊老. 必嚴內外. 必勉學業. 必親益友. 必教子姪. 必慎言語. 必砥行止. 必勤慶弔. 必務稼穡.”

시름겨워 새벽에 일어나 앉았네	悄然坐了晨
오늘 아침 차례에 참여하지 못하니	今朝不與祭
더욱 절감하며 원대한 포부 새로이하네	尤切遠懷新 ¹¹⁾

이는 계당이 족보 일 때문에 南平 鐵川[현 남평군 덕곡면 철천리]에서 1828년(무자) 새해 새벽에 일어나 설날 아침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시름겹지만 반드시 족보 편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시이다.

만년에 계당은 剛齋 宋禔圭(1759~1838) 문하에서 노닐었다. 송치규는 우암의 6대손이며, 사계 김장생의 후손 金正默에게 수학하였다. 그는 이이, 김장생,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며 지키는 데 전념하였다. 계당과 강재는 서로 동갑으로, 죽은 뒤에도 서로 만나자고 약속할 정도로 돈독했다. 계당은 손자 鄭鍾夏를 강재에게 집지의 예를 갖추게 하고, 문인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다. 이때의 흥취를 계당은 「강재 선생에게 작별을 고하며」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봄에 앉아 석 달이 지나	坐春三月了
내 말은 왔던 길을 밟네	我馬踏前程
석별에 동갑으로 말했더니	惜別同庚語
저승에서 맞겠다고 답하네	贈余地下迎 ¹²⁾

송나라 程顥의 제자 游定夫나 朱光庭이 스승 정호를 뵈고 난 뒤, 그 감회를 사람들에게 ‘한 달 봄바람’ 또는 ‘석 달 봄바람’ 속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春風’은 스승 또는 현인이나 덕이 높은 학자를 만난 것을 비유한다. 계당이 시에서 ‘봄’과 ‘석 달’을 언급한 것은 강재 송치규와의 만남을 정호의 고사에 견준 것이다. 한편 훗날 계당의 아들 鄭龜奎가 송치규에게 부친 문집의 서문을 구하며 부친의 별세 소식을 전하였다. 1836년(병신) 12월에 송치규는 『계당집』 서문을 쓰면서, 계당을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요[一鄉之善士], 세속을 초탈한 고상한 지표[拔俗之高標]’¹³⁾라고 하였다.

11) 『溪堂集』卷1, 「戊子元日【以譜事 在南平鐵川】」.

12) 『溪堂集』卷1, 「告別剛齋先生」.

계당의 주요 저술로는 리와 기의 상호 발현을 증명한 「爐火說」, 用工의 선후를 알게 하는 「答存養省察說」, 天道 推步의 모리를 보여주는 「竹園子說」, 養兵의 제도를 논하여 전쟁에 임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기미를 살피게 한 「兵制」 등이 있다.

재주는 있었으나 명운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한 채 산수 속에서 늙어가던 계당은 1831년(신묘, 순조 31) 8월 8일 향년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때 그는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읊었다.

요 임금 말씀 지극해라. 장수하면 욕됨이 많은데	堯言至矣壽多辱
팔십 살이면 얼마나 일생을 그르치겠나	八耄如何誤一生
선에 복을 악에 화를 내리는 건 천도에 달렸으니	福善禍淫天理在
고가의 명성 수립한 것을 좇아 보겠지	從看樹立故家聲 ¹⁴⁾

계당은 자신이 천수가 80살이 넘으면 더 많은 그르침이 생길 것이라며 『장자』 「천지」에 나오는 말로 70세가 넘는 평생을 위로한다.¹⁵⁾ 그리고 평생 고조부 육송처사 정민주로부터 내려오는 학문과 효우의 가풍 수립을 위해 평생 노력했으니, 자기 삶에 대한 화복의 평가는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서경』 「탕고」의 말을 인용하였다.¹⁶⁾ 계당은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盡人事待天命’으로 자기 삶을 평가한 뒤, 고창군 元松面 小谷村 옥녀봉 上麓 임좌 언덕에 묻혔다.

계당의 정실부인 靑松沈氏는 沈彦慶의 딸로, 우의정을 지낸 沈澮의 후손이다. 후실 羅州羅氏는 羅廷鳳의 딸로, 예문관검열을 지낸 羅禕의 후손이다. 후실 全義李氏는 李以進의 딸로, 호조참판을 지낸 李曇의 후손이다. 계당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鄭麟奎이고, 차남은 鄭龜奎이며, 딸은 咸陽吳氏 吳漢

13) 『溪堂集』, 宋釋圭 撰, 「溪堂集序」. “一鄉之善士, 拔俗之高標.”

14) 『溪堂集』 卷2. 「臨終時吟」[1].

15) 『莊子』 「天地」에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요 임금에게 세 가지의 축원, 즉 장수[壽]·부유함[富]·아들 많은 것[多男子]을 축원하자, 요 임금이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며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부유하면 일이 많아지고 장수하면 욕됨이 많아진다.[多男子則多懼, 富則多事, 壽則多辱.]”라고 하여 모두 사양했다는 고사가 있다.

16) 『書經』 「湯誥」에 “하늘의 도는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린다.[天道, 福善禍淫.]”라고 하였다.

紀에게 시집갔다.

요컨대 정회찬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랐는데 과거시험에 실패하였다. 이후 그는 계당정을 지어 은거하면서 가학을 계승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족보 편수에 정력을 기울여 오래된 가문의 명성을 수립하였으며, 심무·심필로 자손들을 경계시키며 處士의 삶을 살았다.

2.2 기호 노론 계열과 실학적 학문 성향

가. 가학과 사승을 통한 우암 학맥 연원

계당 정회찬 가계의 학문 연원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의 학맥에 있다. 주지하듯 우암은 율곡 이이(1536~1584)를 거쳐 사계 김장생(1548~1631)으로 내려오는 학통을 잇고 있다.

계당의 조부 鄭師謙(1688~1730)은 우암의 학문을 계승한 遜齋 朴光一(1655~1723)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당시 재종제 乾山處士 鄭思泰(1690~1726)도 함께 수학하였다. 둘이 돈독하게 지내며 시문을 짓고 절차탁마하니, 세상 사람들이 ‘진양정씨 가문의 쌍벽’이라 하였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정회찬은 13세 때 족숙 鄭仁壽(711~1780)의 문하에 나아가 약 9년 동안 수학하였다. 정인수는 정사태 아들로, 정회찬의 조부 정사겸에게 학문을 닦았다. 정리하면, 정회찬의 가학은 율곡 이이 → 사계 김장생 → 우암 송시열 → 손재 박광일 → 계양 정사겸 → 이재 정인수로 이어지는 기호 노론 계열이다.

또 계당이 만년에 교유하며 수학한 강재 송치규의 학문 연원도 우암과 관련 있다. 강재는 9살 때(1767) 현 경북 안동 평산신씨 가문의 외숙 申晔(1723~?)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그의 외가 평산신씨 가문 인사들은 우암의 문인들과 혼맥을 맺었고, 또 호서지역의 낙론계 학자 過齋 金正默(1739~1799)과 교유하였다. 김정묵은 사계 김장생의 후손이다. 강재는 외가의 영향으로 21세 때(1779) 김정묵의 문하에 나아갔다. 이 이전에 강재는 18세 때(1776) 재종숙 性潭 宋煥箕(1728~1807)에게 학문을 익히기도 했다. 성담은 우암의 5대손이고, 우암에게서 비롯되어 수암 권상하, 남당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호론 학맥에 있다.¹⁷⁾

17) 박학래, 「剛齋 宋樞圭의 학문 활동과 사상사적 위상」, 『율곡학연구』 55, 율곡학회, 2024, 177~

이처럼 정회찬의 학문 연원은 가학과 사승 모두 우암의 학맥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계당은 우암에 대한 존모 의식이 있었다. 이는 그가 우암이 살았던 蘇堤를 지나면서 지은 시에 잘 나타난다.

소제 경계에 들어서니	立於蘇堤上
우리나라의 켈리 풍도네	左海關里風
천고의 공자 이후는	千古夫子後
우리나라에 한 사람 우옹이네	吾東一尤翁 ¹⁸⁾

우암은 충청도 회덕현 소제동[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근처에 비래암과 능인암 서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1683년(숙종 9) 능인암 아래 규모가 큰 강학당을 세워 후학을 양성했는데, 그곳이 바로 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南澗精舍이다.

계당이 소제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남간정사에서 퍼지는 絃誦이었다. 그 모습에서 계당은 그곳이 바로 노나라 켈리에서 제자를 가르쳤던 공자의 유풍이고, 그것을 계승한 이가 바로 우리나라 우암 한 사람이라 여겼다. 계당의 우암에 대한 존모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계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암을 주자와 함께 ‘만세의 종사’라 칭송하였다.

계족산이 뻗어 나와	鷄足山發足
한 줄기가 큰 용으로 변화했네	一枝化弘龍
사당을 세워 함께 올려 배향하니	建祠同躋配
회암과 우암이 만세의 종사라서지	二老萬世宗 ¹⁹⁾

이 시는 회덕의 제현들이 흥농(興農)[현 대전광역시 가양동 일대]에 영당(影堂)을 세우고 주자와 우암의 영정을 봉안한 종회사(宗晦祠)를 읊은 것이다. 계족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산이다. 계족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당시 흥농촌[현 가양동 일대]에 종회사가 있었다.

182쪽 참조.

18) 『溪堂集』卷1, 「過蘇堤」.

19) 『溪堂集』卷1, 「宗晦祠【此祠晦老尤翁並享】」.

요컨대 정희찬은 가학과 사승이 우암 학맥을 연원함으로써 기호 노론 계열의 학문 연원을 가진다. 이러한 학문 연원 속에서 그는 22세 무렵 스승 이재 정인수 사후부터 만년에 송치규를 만나기 전까지 홀로 경전과 성리학 탐구에 전념하였다.

나. 리기의 울곡설 계승

주지하듯, 성리학에서 리와 기의 관계는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理氣不相離]”는 습看的 측면과 “리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理氣不相雜]”의 離看的 측면으로 설명한다. 이는 리와 기를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의 존재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다.

정희찬도 리기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리와 기를 ‘화룻불’에 비유하여 「爐火說」을 지었는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불 속에 마른 장작을 넣으면 불꽃은 성하지만 연기는 미미하고, 젖은 장작을 넣으면 연기는 자욱하지만 불꽃은 죽는다. 불의 본성은 하나인데, 혹은 불꽃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연기가 되기도 하는 것은 장작의 마름과 젖음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체로 일찍이 듣건대 ‘理는 形而上한 것이고, 氣는 形而下인 것’이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하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천지만물은 리와 기가 있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불만이 잘 형용할 수 있다. 불이란 것은 저절로 불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장작에서 타고 있는 뒤에야 바로 불을 이룰 수 있으니, 장작이 아니면 불은 의착될 수 없는 것이다. 불이 장작에 발화되는 까닭은 리가 기를 타고 있기 때문이고, 장작이 이 불을 발화하는 까닭은 기가 리를 자료로 하기 때문이다. 묘합하듯 서로 의지하고 혼란하듯 간극이 없으니,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은 薰草에서 타면 그 향기가 좋고, 薔草에서 타면 그 냄새가 나쁘다. 기름에 불사르면 그 형세는 잔해하고 뽕나무에 불사르면 그 화염이 성대하다. 그 혼초·유초·기름·뽕나무에서 모두 불을 이루 수 있는 것은 리가 같은 것이고, 그 좋음·나쁨·잔해함·성대함이 다른 것은 기가 다른 것이다. 리는 관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²⁰⁾

20) 『溪堂集』卷4, 「爐火說」. “一箇火中, 投之以燥薪, 則炎熾而烟微, 投之以濕薪, 則烟翳而炎殘. 火

언급하였듯이 정희찬은 가학과 스승의 관계로 보면 기호 노론 계열의 학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의 학설에도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정희찬이 차용한 율곡의 이기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발하는 것은 기이고, 말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말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말하게 할 것이 없다.[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 묘합하듯 서로 의지하고 혼란하듯 간극이 없으니,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음[妙合相須, 混淪無間, 理氣之元不相離]
- 리는 관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而氣局]

율곡은 모든 만물은 ‘형이상’한 것으로서의 리와 ‘형이하’한 것으로서의 기가 묘합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리기는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이합이 없다고 본다. 또 리와 기는 서로 다른 둘이지만 하나의 존재 양태로 있고, 그러면서도 리와 기 둘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理氣妙습의 구조로 이해한다. 이 ‘리기묘합’을 율곡은 다른 말로 氣發理乘, 즉 발하는 기 위에 리가 타고 있는 존재 양태라 표현하였다. 오직 발하는 것은 기이고, 리는 그 자체가 발할 수 없고 기가 발하는[氣發] 것의 所以가 된다고 하였다. 또 율곡은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다[理無形, 氣有形]’, 즉 리는 본래 형체와 작용이 없지만 만물에 공통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기는 본래 淸濁·厚薄·偏正이 있어 서로 통하지 않고 개체에 국한된다는 ‘理通氣局’이란 독창적 학설을 제시하였다. 이 말은 리기의 體用一源과 리기묘합을 아울러 통찰한 것으로, 리의 체용 논리인 理一分殊와 기의 체용 논리인 氣一分殊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²¹⁾

계당은 ‘불[火]’과 ‘장작[薪]’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리와 기를 설명하면서,

之性一也, 而或爲炎或爲烟者, 薪之燥濕, 有以致之也. 蓋嘗聞之, 理, 形而上者也, 氣, 形而下者也. 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天地萬物, 莫不有理氣, 而惟火可以善名狀也. 火之爲物, 不能以自火, 必薰於薪而後, 乃能成火, 非薪則火無所依着焉. 火之所以發於薪者, 理乘於氣也; 薪之所以發是火者, 氣藉乎理也. 妙合相須, 混淪無間, 理氣之元不相離者, 可見於此也. 火之焚於薰者, 其香美; 焚於穢者, 其臭惡. 薰於膏則其勢殘, 薰於菜則其焰盛. 其所以在薰穢膏菜而皆能成火者, 理之所同也; 其所以有美惡殘盛之殊者, 氣之所異也. 理通而氣局者, 可見於此也.”

21)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4, 200~205쪽 참조.

리와 기의 영역을 분명하게 긍정하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理氣一元論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는 「노화설」의 다른 부분에서 “리와 기가 모함하여 응긴 것은 흡사 한 덩어 뜨거운 화롯불의 불과 같아서 저것은 솟이고 이것은 불이란 양단으로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理氣之妙合而凝者 恰如一塊烘炭之火 不可以彼炭此火分作兩段看爾]”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리와 기가 합일적 관계라는 논지 전개 과정에서 그는 율곡의 성리설을 그대로 수용하여 증명함으로써, 율곡의 성리설 계승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전남 長城 출신의 노사 기정진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고창의 文殊寺 南庵에서 피서하며 학문을 닦았다. 문수사는 현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에 있는데, 이곳은 장성과 고창의 경계에 있는 축령산에 있다. 피서를 계기로 노사는 일찍부터 고창지역 학인들과 교류하게 되어 고창, 무장, 흥덕 세 고을에 상당수의 문인들이 있게 되었다.²²⁾ 이곳에서 노사는 46세 때(1843) 『납량사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이 초고는 77세 때(1874) 일부 개작되어 완성된다.

노사의 『납량사의』는 근원적 절대성을 가진 본체[理]와 그것의 구현으로 드러나는 현상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정리한 理一分殊를 중심으로 논한 것이다. 율곡은 理와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해, 본체인 리가 청탁·후박·편정의 參差不齊한 氣의 제약을 받아 개별적인 分殊之理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理一之理와 분수지리의 관계를 분리하여, 종적인 관계 속에서 理氣不相雜으로 귀결한 것이다. 노사는 율곡의 주장대로라면 리의 주재성이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에 그는 『납량사의』를 통해 理와 分의 관계에서 ‘분’을 ‘리’에 포함시켜 기에 의한 分殊가 理[理一] 가운데 미세한 조리라고 하였다. 즉 理一을 말할 때 分이 벌써 함유되어 있고, 分殊를 말할 때는 리일이 이미 거기에 自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사의 리와 分의 관계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 매개하며 혼연하다는 리 중심의 理分圓融이다.²³⁾

언급하였듯이, 노사는 정회찬 가문과 인연이 있었다. 특히 노사는 61세 때인 1858년 9월 10일 정회찬의 유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지어 주었다. 그가 고창에서 『납량사의』 초고를 완성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노사는 자신의

22) 이형성, 앞의 논문, 199~206쪽 참조.

23)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자,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4, 541~550쪽 참조.

이형성, 앞의 논문, 197~198쪽 참조.

성리학적 사유를 집성하여 77세 때인 1874년 『납량사의』를 완성했고, 80세 때인 1878년 『猥筆』을 공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노사는 계당이 저술한 「爐火說」, 「答存養省察前後說」, 「理心箴遺誠」 등의 성리설을 분명히 읽음으로써, 일찍이 계당의 학문세계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사가 주장한 리와 기의 혼일적 차원에서 기에 대한 리의 적극적 주재를 강조하는 理一元論의 성리설은, 정회찬의 리와 기의 합일적 관계, 즉 理氣一元論 관계의 성리설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고 사료된다.

다. 경세치용의 실학적 사고 발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모순 해결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들은 방법론으로는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농민 생활과 국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하였다. 예컨대 반계 유형원(1622~1673)은 均田論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였고, 성호 이익(1681~1763)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정 토지 외엔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限田論을 주장하여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려 했다. 또 다산 정약용(1762~1836)은 토지를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闔田論을 제시하였다.

계당 정회찬 또한 「田制」, 「兵制」, 「四法」, 「防納散結」 등의 글을 통해 실학적 개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전제」를 살펴본다. 「전제」에서 계당은 객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자문자답인 셈이다.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주요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객의 질문】

지금의 토지제도는 이미 徹法도 아니고 또 助法도 아니다. 그러나 1/10의 뜻은 그다지 서로 멀지 않다. (중략) 조선이 개국한 이후 또한 빈곤의 근심이 있음은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근세 이래 매양 국고는 비고 백성은 빈곤하다는 근심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정전법을 갑자기 회복할 수 없다면, 한전제 또한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²⁴⁾

24) 鄭梅燦, 『溪堂集』 卷5, 「田制」. “客復問於余曰, (중략) 卽今田制, 旣非徹, 又非助. 然什一之意, 不甚相遠. (중략) 國朝以後, 亦未聞有貧匱之憂, 而挽近以來, 每有國虛民貧之憂者, 何哉? 井田之法, 猝不可復, 而限田之制, 亦可以行否?”

【정희찬의 대답】

주자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큰 난리를 겪어 천하의 땅이 모두 국가 소유가 되지 않으면 정전법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前漢 董仲舒의 한전제는 비록 兼并의 폐단은 막을 수 있을 듯하지만, 이 또한 갑자기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체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산이 많으며, 바다로 둘러싸이고 강이 협소하며, 100리의 넓은 들도 없고, 토지는 6등급의 한계가 있으니 『서경』 「禹貢」에 비교하면 이미 백성의 생업을 넉넉히 하려는 뜻에 어긋난다. (중략)

어찌하면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고 국고를 소모하지 않겠는가? 대개 우리나라 호조의 총 부과는 145만여 결에 불과하고, 한성부 호적에 편입된 평민은 또한 151만여 호에 지나지 않는다. 매 1호에 매 1결이면 오히려 부족한 것이 5~6만 결이니,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지 못한 것이 마땅하고, 나라의 재용이 풍부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땅은 비옥한 곳이 많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소금이 많으며, 또 밀과 보리도 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쓰임을 절약하면 빈곤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그러므로 옛날에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를 면했고, 국고는 풍족하였다. 지금은 백성들은 어찌하여 옛날만 못하고, 국고는 어찌하여 옛날만도 못한가?

야! 토지[結]는 재물을 생산하는 근본이 되고, 공물과 부세는 재용의 필수가 되며, 수령은 백성을 통제하고 국사에 이바지하는 벼슬이다. 벼슬이 그 책임자를 얻으면, 田政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스려진다’라고 말한 것은 부역을 공평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전의 간사함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아전의 간사함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하게 조세부와 대상을 누락시킨 땅[隱結]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어찌 수효를 덧붙여 보고함[加報]이 있겠는가? 어찌 수효를 덧붙여 보고함이 있더라도 또 하물며 結稅를 도둑질해서 착복함[偷結]이 있겠는가? 지금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을 얻어서 여러 고을에 수령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고을이 그 책임자를 얻으면 한 고을의 전정이 다스려질 것이고, 열 고을이 그 책임자를 얻으면 열 고을의 전정이 다스려질 것이고, 360개의 주(州)가 모두 그 책임자를 얻으면 360개 주의 전정이 크게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어찌다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지 못하고 나라의 재용이 부족함에 이르러서, 우리 성상을 밝났으로 깊이 근심하게 하는가.²⁵⁾

25) 鄭梅燦, 『溪堂集』 卷5, 「田制」. “余曰, 朱夫子嘗曰 非大經亂而天下之田 盡附於公 則井田之法不可復舉 又曰 董子限田之制 雖若可防兼并之弊 而此亦不猝行. (중략) 盖我國地小山多, 海纏江促, 野無百里之廣, 田有六等之限, 較諸禹貢, 已違厚民之意. (중략) 如之何, 民不窮而國不耗哉? 大率我國地部總附, 不過一百四十五萬餘結也, 漢府編氓, 亦不過一百五十一萬餘戶也. 每一結於每一戶, 而猶且不足者, 五六萬結, 則民食之不贍, 宜矣, 國用之不富, 固矣. 然而地多膏沃, 海多漁鹽, 又有牟麥. 節食而節用, 則何患於貧匱? 是故古者, 民不飢寒, 國有殷富. 今也, 民奚以不古

조선은 1719년(숙종45)과 1720년 2년에 걸쳐 정부 재정 고갈의 위기감에서 토지대장을 만들기 위해 삼남 지방에 均田使가 파견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다. 이른바 庚子量田으로, 도 단위로 시행된 도별양전이다. 이는 수세 대상에서 빠진 개간된 진황지를 찾고 수령의 은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 기반 확충과 농민층의 진황지 납세[白徵]를 해소할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 토호들은 균전사에게 뇌물을 쓰거나 농간을 부려 量案에서 자신의 토지를 누락시키거나 토지의 품질을 낮게 매겼고, 빈농들은 토질이 척박한데도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환곡으로 재정을 보충하는 새로운 수입 구조 도입으로 큰 실익이 없어지자, 도별양전 대신 查陳量田과 읍별양전으로 변모해 나갔다.

이러한 조선 후기 토지제도의 흐름 속에서, 계당은 객과의 문답으로 토지제도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조선의 토지제도가 정전법에 따른 은나라의 ‘助法’²⁶⁾이나 주나라의 ‘徹法’²⁷⁾과는 다르지만 1/10을 세금으로 낸다는 점은 거의 비슷한데, 국고는 비고 백성은 빈곤한 모순이 있다고 파악한 객의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객이 해결책으로 성호 이익의 주장처럼 한전제 시행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계당은 중국과 달리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넓은 들이 없는 우리나라의 국토 실정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이해하였다. 오히려 계당은 제도적 통제 대신 절제와 절약 및 인적 쇄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계당이 말한 ‘적임자’는 결국 부역을 공평히 하고, 간사한 아전을 물리치며, 청렴과 애민 의식이 투철한 관료이다. 계당은 이러한 仁政의 자질을 균전사나 지방 수령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라 여겼다. 이를 통해 계당은 당시 균전사나 지방 수령의 토지제도 관련 부정부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若, 國奚以不古若? 嗚呼! 結爲生財之本, 貢賦爲財用之需, 守令爲制民供國之官. 官得其人, 則田政安得以不修? 修之云者, 不惟均賦役也, 抑戢吏奸也. 不惟戢吏奸也, 抑恤民隱也. 不惟恤民隱也, 抑無隱結也. 如此者, 豈肯有加報乎? 豈肯有加報乎, 又況有偷結乎? 今安得如此人, 而作守令於列邑歟? 一邑得其人, 則一邑之田政修, 十邑得其人, 則十邑之田政修, 三百六十州, 皆得其人, 則三百六十州之田政, 罔不大修. 何至民食之不贍國用之不足, 而使我聖后端憂於宵旰耶.”

26) 은나라는 정전법에 따라 여덟 집에 각각 70묘(畝)의 사전(私田)을 나누어 주고 중앙의 공전(公田) 100묘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조세로 바치는 ‘조법(助法)’을 시행했다.

27) 주나라는 여덟 집에 각각 100묘의 사전을 지급하고 중앙의 공전 100묘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조세로 바치는 ‘철법(徹法)’을 시행했다.

요컨대 정희찬은 국고 탕진과 민생 빈곤의 현실 타개책이 토지제도에 있다는 인식과 아울러 현행 토지제도 문제 극복의 해결책으로 제도적 통제를 제시한 기존 선현들과 달리 절제와 절약 및 仁政을 기반한 위정자 의식 제고의 인적 쇄신을 제시하였다. 계당의 田制에 대한 경세치용의 실학적 사고를 「병제」나 「방납산결」 등의 저술과 결부시켜 보면 전정, 군정, 환곡등 이른바 삼정의 문란을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한시에 투영된 사유와 흥취

정희찬의 문학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시는 『계당집』 권1~권3에 총 583수가 수록되어 있다. 산문 문학으로는 권4에 실려 있는 「虎說」, 「鼠說」 등이 있다. 여기서는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1 성리학 명제에 대한 성찰과 사유

계당은 성리학 범주의 명제들, 예컨대 明德, 心, 情, 動靜, 體用, 喚醒, 利欲 등에 대해 시로 표현하였다. ‘명덕’을 읊은 것부터 살펴보자.

이 덕은 심과 성이니	是德心與性
광명정대함을 하늘에서 얻었도다	光明得乎天
허령하여 못 이치를 갖추고 있어	虛靈具諸理
가는 곳마다 체와 용이 온전하네	隨處體用全 ²⁸⁾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명덕’을 “사람이 하늘에서 얻었는데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 여러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였다. 또 주자는 “하늘이 사람이나 만물에게 부여한 것을 命이라 하고, 사람과 만물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性이라 한다. 몸을 주재하는 것을 心이라 하고, 하늘로부터 받

28) 『溪堂集』卷1 「明德」.

29) 朱熹, 『大學章句』 「經一章」: 明, 明之也.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아 광명정대한 것을 명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³⁰⁾

또 주자는 명덕이 심인지 성인지를 물은 혹자에게, 심과 성을 분별하여 설명하면서 張載의 ‘心統性情’을 거론하여 답하였다.³¹⁾ 또한 ‘虛靈不昧는 곧 심이고, 이 리가 그 속에 갖추어지고 충족하여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것이 곧 성이고, 느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곧 정이다³²⁾라고 하였다. 곧 ‘허령불매’는 심, ‘具衆理’는 성, ‘應萬事’는 정으로 구분하여 풀이함으로써, ‘심통성정’으로 ‘명덕’을 해석하였다.³³⁾ 한편 주자는 명덕의 뜻을 ‘허령불매’ 4글자만으로 설명해도 충분한데, ‘구중리’와 ‘응만사’를 더 말하여 체와 용을 다 포괄하면서 명덕이 허망한 것이 아닌 실재적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³⁴⁾

정회찬은 주자의 명덕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가 시에서 명덕을 심과 성의 합일적 존재로 여긴 것은 결국 주자가 말한 ‘심통성정’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서 받은 광명정대한 명덕은 허령하여 모든 이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가는 곳, 즉 만사에 응할 때마다 체와 용이 모두 온전하다는 것이다.

계당이 말한 ‘심과 성이 합일된 명덕’은 달리 말하면 ‘理心’이다. 그래서 그는 「理心箴遺誠」에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마음[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어둡지 않아 맑게 깨어있는 상태인 이른바 常惺惺의 敬 공부를 통해 명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³⁵⁾ 그렇다면 계당의 「명덕」 시는 수양의 극지에서 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과 성의 합일된 명덕을 밝히는 수양은 바로 인간의 자율적 권위나 권능을 회복시켜 의연한 품격을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30) 胡廣 等 撰 『大學章句大全』經1章, 제1절, 小註. “朱子曰 天之賦於人物者, 謂之命, 人與物受之者, 謂之性. 主於一身者, 謂之心, 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 謂之明德.”

31) 胡廣 等 撰 『大學章句大全』經1章, 제1절 小註. “問明德是心是性 曰心與性自有分別 靈底是心 實底是性 性便是那理 心便是盛貯該載敷施發用底…… 張子曰 心統性情 此說最精密.”

32) 胡廣 等 撰 『大學章句大全』경1장, 제1절 小註. “虛靈不昧 便是心 此理具足於中 無少欠闕 便是性 隨感而動 便是情.”

33)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196~201쪽 참조.
김현진, 「사계 김장생의 『대학변의』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9쪽 참조.

34) 胡廣 等 撰 『大學章句大全』經1章, 제1절 小註. “只虛靈不昧四字, 說明德意, 已足矣. 更說具衆理應萬事, 包體用在其中, 又却實而不爲虛.”

35) 『溪堂集』卷4 「理心箴遺誠」. “人奚爲人? 惟心之存. 心奚妄存? 惟操之云. 操而又存, 希賢希聖. 捨之又肆, 爲狂爲妾. 始自危微, 終歸淵星. 要在明明, 敢忘惺惺.”

하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를 강화시키는 면이 지대하다 하겠다.³⁶⁾
 계당은 ‘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심이란 몸의 주재자로	心者身之主
허령하여 성과 정을 통섭하네	虛靈統性情
하늘의 화기를 보양하는 곳이니	天和保養處
정신과 기운이 고요하고 맑아야 하리	神氣靜而清 ³⁷⁾

주자는 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주자대전』 : 사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아니요, 주체가 되지 객체가 되지 않으며, 사물에 명령을 내리지 사물에게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다.³⁸⁾
- 『맹자집주』 : 사람의 신명이니 모든 리를 갖추고 있어서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³⁹⁾
- 『주자어류』 : 주재하는 것을 이른다.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모두 주재하며 고요할 때는 쓸모가 없고 움직일 때가 되어서야 주재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주재한다는 말은 혼연된 체통이 본래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하지만 두루뭉실하게 성정과 하나가 되어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단몽]⁴⁰⁾
- 『주자어류』 :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다.[위춘]⁴¹⁾

주자의 말을 정리하면, 심은 몸을 주재하는 절대 주체로 객체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명령받지도 않으며, 신명이고, 구중리하고 응만사하여 성과 정을

36) 이형성, 「寒洲 李震相의 ‘明德說’에 대한 理重視의 觀點 一攷」, 『東洋哲學』 44, 한국동양철학회, 2015, 342쪽 참조.

37) 『溪堂集』 卷1 「心」.

38) 『朱子大全』 卷67, 「觀心說」. “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一而不二者也, 爲主而不爲客者也, 命物而不命于物者也.”

39) 朱熹, 『孟子集註』 「盡心上」 제1장, 朱子註.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40) 黎靖德, 『朱子語類』 권5 「性理二」 제72조목. “心, 主宰之謂也. 動靜皆主宰, 非是靜時無所用, 及至動時方有主宰也. 言主宰, 則混然體統自在其中. 心統攝性情, 非僞侷與性情爲一物而不分別也.”[端蒙]

41) 黎靖德, 『朱子語類』 권5 「性理二」 제89조목. “心者, 一身之主宰.”[楅]

통섭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계당의 「심」 시 1구와 2구는 주자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심은 ‘하늘의 화기를 보양하는 곳’이라 하였다. 여기서 ‘하늘의 화기’, 즉 ‘天和’는 『장자』 「知北遊」에서 ‘조화를 얻은 자연의 도’라고 풀이한 것을 근거하면 천도와 같은 말이다. 천도는 천명과 일맥상통하며, ‘천명’은 『중용』에서 性이라 하였다. ‘保養’은 ‘존양’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그렇다면 계당은 3구를 통해 심은 천도를 존양하는 곳을 말하는 셈이다. 따라서 ‘천도를 존양한다’는 말은 결국 존심양성과 다르지 않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구에서 ‘정신과 기운을 고요하고 맑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용』에서 말한 存天理遏人慾의 수양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정회찬은 성리학 명제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시를 통해 발현하면서 수양에 의한 절저한 도덕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기에 단순한 사변적 관상철학(觀想哲學)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3.2 계당팔경에 담은 처사 삶의 흥취

정회찬은 과거시험을 통한 출사를 접고, 지금의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계당정을 짓고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였다. 이때 그는 계당정에서 바라보이는 8가지 빼어난 풍광을 선정해서 「溪堂八咏」을 읊어 산수를 즐기는 자신의 흥취를 표출하였다. 이 작품은 『계당집』 권2에 실려 있으며, 그가 선정한 8경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九皇歸雲 | [2] 三台落照 | [3] 龍溪霽月 | [4] 蛙巖鎖烟 |
| [5] 烟郊牧簞 | [6] 雨田農歌 | [7] 晴川盤石 | [8] 懸崖瀑布 |

계당정을 방문한 제현들은 정회찬의 「계당팔영」에 대해 차운시를 남겼다. 제현으로는 任俊常, 金章休, 任麟材, 鄭漢楫, 沈鍊, 鄭震邦, 羅大弼, 吳道休, 차남 鄭龜奎, 장손 鄭鍾夏, 奇正鎭, 증손 鄭河源 등 모두 12명이다. 『계당집』 권7에 「附溪堂八咏次韻」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계당은 먼저 「구황산 돌아가는 구름[九皇歸雲]」에서 이렇게 읊었다.

산 병풍처럼 늘어섰고 바위 사립문 되니 山爲屏列石爲扉

늪은이 뜬구름과 은둔해 숨었네	翁與浮雲遯跡微
삼삼오오 흩어지는 구신봉 위 그림자	散作三三峯上影
시비 잊고서 자유로이 돌아가네	是非忘却任他歸 ⁴²⁾

구황산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와 성송면 계당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에 걸쳐 있는 높이 500m의 바위 봉우리가 있는 산이다. 계당리를 기준하면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병풍처럼 펼쳐진 산이다. 그 이름은 구신봉에서 9명의 임금[九皇]이 난다고 하는 설과 그곳 명당에 묘를 쓰면 9대에 걸쳐 아홉 명의 임금이 나온다는 풍수설에서 유래하였다.

계당은 1구와 2구에서 늘어선 구황산을 담장으로 바위 산봉우리를 사립문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산과 가까운 계당정 지세를 설명하여, 그곳이 자신의 은거지가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자유로이 떠가고 흩어지는 구신봉 위 구름이 시비를 잊었다고 의인화하였다. 이는 구름처럼 덧없는 세상의 시비 소리를 잊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것이다.

이런 은거 생활 속에서 계당은 학문으로의 침잠을 생각했다. 이를 「용계에 뜬 맑게 갠 달[龍溪霽月]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시냇가에 계당 있고 계당 아래 시내니	溪上溪堂堂下溪
달이 가까이 붙어 흐름을 먼저 차지했네	先占得月近流樓
한밤중에 정자·주자의 촛불을 잡는다면	中宵如秉程朱燭
천지에 비바람 쳐도 도는 어둡지 않으리	風雨乾坤道不迷 ⁴³⁾

용계는 계당리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를 가리키는데, 지형이 용이 잠긴 형국이라 ‘용계’라 한다. 계당은 이 용계에 비 그친 뒤 맑게 갠 달이 비치는 것을 계당정에서 내려다보았다. 맑게 갠 달, 즉 霽月을 언급한 계당의 의도는 청신한 밤 풍광만 즐기려는 게 아니다. 물에 비친 달에서 그는 이치는 하나이지만 세상 만물에 나타나는 현상은 수만 가지를 말하는 리일분수를 생각하게 되었다. 즉 용계에 비친 맑고 밝은 달은 성리학적 사유의 발화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계당은 한밤중에도 촛불로 불 밝혀 程子和 朱子の 글을 읽었다. 바로 격물치지의

42) 『溪堂集』卷2, 「溪堂八咏」[九皇歸雲]

43) 『溪堂集』卷2, 「溪堂八咏」[龍溪霽月]

궁리 자세이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西學이나 청나라 문물의 유입으로 소용돌이 치는 19세기 시대 흐름 속에서 斯道, 곧 유학의 도가 쇠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세도부지의 사명 의식을 드러낸다.

계당은 성리학적 사유나 세도부지 외에도 또 자연을 통해 도를 체찰하기도 하였다. 「벼랑의 폭포[懸崖瀑布]」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산과 못이 서로 통해 기세가 아름답고	山澤相通氣勢佳
뿔어내듯 곧게 쏘며 넓고 끝이 없네	噴然直射浩無涯
애오라지 우리 도를 물에서 관찰하니	聊將吾道觀於水
만 길 벼랑에 백 자의 폭포로다	百尺飛湍萬丈崖 ⁴⁴⁾

계당이 말한 ‘벼랑의 폭포’는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추산봉 아래 운선암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가리키는 듯하다. 과장은 있지만, 그만큼 벼랑에서 폭포가 곧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케 한다. 계당은 폭포의 외적 형상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대상인 물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성현의 말씀 때문이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知者樂水]”⁴⁵⁾라고 하였다. 이는 사리에 통달하여 두루 흘러 막힘이 없어야 하는 智者의 덕목을 설파한 것이다. 또 공자는 “흘러가는 것이 이 물과 같도다.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逝者如斯, 不舍晝夜.]”라고 하며, 道體의 본연을 보여주며 늘 성찰 공부를 하라고 면려하였다.⁴⁶⁾ 맹자는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라고 하여, 도에 근본이 있음을 말하였다.⁴⁷⁾ 이러한 觀水之道를 통해 계당은 지자의 덕목, 성찰의 공부를 비롯해 도의 체찰을 징험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계당은 「계당팔영」을 통해 은거지 계당에서 구름을 벗 삼아 세상의 시비 소리를 잊고 학문에 침잠할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달과 폭포 등의 산수를 통해 성리학적 사유와 시대 인식에 따른 세도부지의 사명 의식 및 지자

44) 『溪堂集』卷2, 「溪堂八咏」[懸崖瀑布]

45) 『論語集註』「雍也」제21장.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朱子註. “知者達於事理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46) 『論語』「子罕」제16장. “子在川上曰, 逝者如斯, 不舍晝夜.” 朱子註. “天地之化, 往者過, 來者續, 無一息之停, 乃道體之自然也. 然其可指而易見者, 莫如川流, 故於此發以示人,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斷也.”

47) 朱熹, 『孟子集註』「盡心上」. “觀水有術, 必觀其瀾.” 朱子註. “此言道之有本也.”

의 덕목이나 성찰의 공부를 통한 도의 체찰을 징험하고자 하였다.

정희찬의 「계당팔영」에 대한 여러 제현의 차운시가 있지만, 그중 노사 기정진의 작품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정씨의 「계당팔영」은 예전에 명사들이 화답한 게 많은데, 부끄러움을 잊고 운을 맞춘다. 감히 도가 계당공의 심사를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다만 정희청의 요구에 답한다(鄭氏溪堂八詠曩時諸名勝多和者 忘醜步次 非敢曰道得溪堂公意中事 聊以塞希清之求)」라는 제목으로 차운하였다. 그는 「돌아가는 구름[歸雲]」에서 은거하는 정희찬을 도연명에 견주며 이렇게 읊었다.

평온한 잠에 길손 맛을 사립문 여는 걸 잊으니	睡穩忘開迎客扉
근년 이래로 세 오솔길 희미해져 가네	年來三逕轉依微
세간에 무심한 사물 극히 적으니	世間絕少無心物
너 산 구름 아니면 뉘와 함께 돌아갈까	靡爾山雲誰與歸 ⁴⁸⁾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소나무와 대나무와 국화를 심은 세 오솔길이 황폐해진 가운데,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래도 아직 여전하다.[三逕就荒 松竹猶存]”라고 하였다. 노사는 계당정으로 오는 길마저 희미할 정도로 방문객이 뜸한 데다 주인조차 누가 오건 말건 사립 대문의 개폐에 전혀 관심 없이 한가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먼저 묘사하였다. 이어 그는 그 속에서 무심한 구름과 함께하는 주인翁을 이야기함으로써, 계당이 「구황귀운」에 담은 정취를 이었다.

또 노사는 「폭포(瀑布)」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얼음처럼 방울진 한 줄기가 특별히 아름다워	水溜一條分外佳
계당의 마음 이로부터 하늘 가로 향했네	溪心從此向天涯
갈매기 백로는 늘 깊은 데서 목욕하는데	鷗鷺尋常深處浴
근원이 절벽에서 나옴을 어찌 알았을까	源頭豈識出懸崖 ⁴⁹⁾

48) 奇正鎮, 『蘆沙集』卷2, 「鄭氏溪堂八詠曩時諸名勝多和者忘醜步次非敢曰道得溪堂公意中事聊以塞希清之求」[歸雲]

『溪堂集』卷7, 「追附 蘆沙先生奇正鎮」[九皇歸雲]

49) 奇正鎮, 『蘆沙集』卷2, 「鄭氏溪堂八詠曩時諸名勝多和者忘醜步次非敢曰道得溪堂公意中事聊以塞希清之求」[瀑布]

『溪堂集』卷7, 「追附 蘆沙先生奇正鎮」[懸崖瀑布]

노사는 얼음처럼 맑고 투명하게 방울져 쏟아지는 폭포수 때문에 계당이 폭포를 좋아한다고 보았다. 갈매기와 백로를 끌어온 것은 하얀 색깔이 주는 깨끗함으로 은자의 모습을 대비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자』 「黃帝」의 ‘鷗鷺忘機’를 염두에 둔 것이다. 꾸미고 속이는 마음, 즉 機心을 잊고 세상과 다툼없이 담박하게 살아가는 은자 계당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 또 源頭處를 언급한 것은 계당이 주자를 본받아 학문과 수양을 통해 청정한 정신세계에 도달하려는 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주자는 「觀書有感」에서 “반 묘의 네모난 연못이 하나의 거울처럼 열렸는데,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문노니 저 어찌 이렇게 맑을 수 있는가? 근원에서 활수가 솟아나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고 하였다. 즉 근원으로부터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흐르는 연못의 물은 지속적인 맑음을 유지함으로써,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천리를 살필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계당이 ‘하늘 가로[天涯] 향했다’는 것은 결국 폭포의 원두처인 절벽을 거쳐 하늘 가를 향한 것으로, 곧 학문과 수양으로 天道를 향해 나아갔다는 말이다.

3.3 발상 전환의 재치와 유희

정회찬은 일상에서 뜻밖의 사건이나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면서 재치 있고 인간미 넘치게 대처하였다. 요즘 말로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아궁이의 개구리[籠下蛙]」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망이 젖도록 비가 오랫동안 내려	地濕天雨久
물찬 아궁이에 알 깬 개구리 많네	沈籠產蛙多
시끄럽게 울어 대며	喧然鳴鼓吹
물속의 현가를 듣게 하네	水底聽絃歌 ⁵⁰⁾

『진국책』에 의하면, 춘추시대 쑤나라 趙簡子는 尹鐸을 晉陽의 수령으로 삼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 민심을 안정시켰다. 훗날 조간자의 아들

50) 『溪堂集』卷1, 「籠下蛙」.

趙襄子は 智伯의 공격을 받고 진양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지백이 진양을 포위하고 물로 공격하였다. 그 물이 아궁이에 차서 개구리가 알을 낳 정도였는데, 진양의 백성들은 조간자의 은덕을 생각해서 배반할 마음이 없었다.[沈窶產蛙民無叛意] 마침내 조양자는 지백의 공격을 물리쳤다.

계당은 오랜 비로 물이 찬 아궁이에서 알을 낳은 개구리를 보며, 『전국책』의 고사를 떠올렸다. 이 고사가 암시하는 것은 仁政과 報應이다. 그래서 계당은 아궁이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를 살려주기로 했다. 너그러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그에게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귀에 絃歌로 들렸다. 주지하듯 ‘현가는 비파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는 소리라는 뜻으로, 武城의 읍재가 되어 예악으로 백성을 다스린 공자 제자 子游의 善政을 일컫는 말이다. 어쩌면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계당은 『논어』 구절로 치환함으로써, 재치 있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빌린 말이 또 죽다[借馬又斃]」라는 시를 살펴보자.

내 말이 문득 복잡한 사정으로	我馬忽委折
서쪽에서 잃고 또 동쪽에서 잃었네	喪西又喪東
어찌 알았으리, 화와 복이 어긋나	安知非倚伏
나 또한 변방의 노인이 될 줄을	吾亦塞之翁 ⁵¹⁾

원문의 ‘倚伏’은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말로, 『노자』 제58장의 “화는 복이 기대는 바이고, 복은 화가 엮드려 있는 바이다.[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또 주지하듯 새옹지마는 『淮南子』 「人間訓」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변방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가 몇 달 뒤 오랑캐 준마들을 거느리고 돌아왔고,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었고, 1년 뒤 오랑캐가 침범해 왔을 때 아들이 징집을 모면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고사는 길흉화복과 이해득실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분수를 편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역설한 것이다.

계당은 자기 말에다 빌린 말까지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절망적 상황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를 통해 화복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불안한 심리 극복

51) 『溪堂集』卷1, 「借馬又斃」.

과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생밤[生栗]」이란 시를 살펴보자.

아침저녁으로 생밤을 먹이니	朝暮啖木實
3개나 4개를 준다는 저공과 같네	三四等狙公
자식들 꾸지람에도 찾을 줄 만 아니	責子徒知覓
나는 울리의 늙은이로구나	吾於栗里翁 ⁵²⁾

『장자』 「齊物論」에 전국 시대 宋나라 狙公이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내더니,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자 모두 기뻐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익히 아는 朝三暮四 고사성어 내용이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계당이 자식들에게 생밤을 먹고 있는 현실을 ‘조삼모사’의 주인공인 저공과 원숭이들에 견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생밤만 찾는다. 결국 자식을 위해 밤을 챙겨주는 계당은 자신을 밤꿀, 즉 栗里의 늙은이라 표현하였다. 사실 ‘울리’는 계당이 중의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울리’는 중국 남북조시대 東晉의 도연명이 팽택 현령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은거한 고향 마을이다. 그는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들을 책망하며[責子]」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두 귀밑은 백발이 되었고	白髮被兩鬢
몸뚱이도 건강하지 못하네	肌膚不復實
비록 다섯 아들이 있으나	雖有五男兒
모두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네	總不好紙筆
아서(阿舒)는 나이가 이미 열여섯이 되었으나	阿舒已二八
게으르기 본래 비할 데 없네	懶惰故無匹
아선(阿宣)은 열다섯 살이 되었으나	阿宣行志學
학문을 좋아하지 않네	而不愛文術
웅(雍)과 단(端)은 열세 살이 되었으나	雍端年十三

52) 『溪堂集』卷1, 「生栗」.

여섯과 일곱을 모르네	不識六與七
통(通)은 아홉 살이 되었지만	通子垂九齡
오직 배와 밤만 찾는구나	但覓梨與栗
천운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天運苟如此
또한 술잔이나 기울여야지	且進盃中物 ⁵³⁾

계당은 도연명의 막내아들이 배와 밤만 찾는 것을 자신의 아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도연명과 같은 처지임을 ‘올리옹’이란 시어에 함축한 것이다. 도연명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쓰린 속을 달래는 반면, 계당은 오히려 자책의 태도를 보였다.

어버이 봉양에 불효를 탄식하고	養親嗟不孝
자식 교육에 또 인을 어겼구나	教子亦違仁
애통하도다, 나의 도여	痛矣某之道
인간 한 사람이 죄인이로구나	人間一罪人 ⁵⁴⁾

이는 「자신을 책망하며[自責]」라는 시이다. 계당은 부모에 대한 불효와 자식에 대한 자애가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죄인’이라 자책하고 있다. 평소 수양을 중시하는 그 다운 고백이자 인간미 넘치는 아버지의 정을 엿보게 한다.

4. 결론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기 전라북도 고창지역에서 활동한 溪堂 鄭梅燦(1759~1831)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문학적 면모를 조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회찬은 과거에 실패한 뒤, 계당리에 溪堂亭을 지어 은거하면서 가학을 계승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족보 편수에 정력을 쏟아 가문의 명성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十冊」와 「十必」로 자손들을 경계시키며 處士의 삶을 살

53) 陶潛, 『陶淵明集』 卷3, 「責子(責子)」.

54) 『溪堂集』 卷1, 「自責」.

았다.

그의 학문은 3가지 면에서 기호 노론 계열과 실학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학과 사승을 통한 우암 학맥 연원이다. 이는 고조부 鄭敏周로부터 전하는 家學 및 頤齋 鄭仁壽와 剛齋 宋穉圭의 사승이 모두 우암의 학맥에 닿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理氣의 율곡설 계승이다. 그는 「爐火說」에서 ‘불[火]’과 ‘장작[薪]’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리와 기가 합일적 관계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율곡의 성리설을 수용하여 증명하였다. 한편 리와 기를 합일적 관계로 파악한 정희찬의 성리설은 리와 기의 혼일적 차원에서 理一元論을 주장하는 노사 기정진의 성리설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경세치용의 실학적 사고 발현이다. 계당은 국고 탕진과 민생 빈곤의 현실 타개책이 토지제도에 있다는 인식과 아울러 현행 토지제도 문제 극복의 해결책으로 제도적 통제를 제시한 기존 선현들과 달리 절제와 절약 및 仁政을 기반한 위정자 의식 제고의 인적 쇄신을 제시하였다. 계당의 田制에 대한 경세치용의 실학적 사고를 「병제」나 「방납산결」 등의 저술과 결부시켜 보면 三政의 문란을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희찬의 문학적 면모는 주로 漢詩에 집중되어 있다. 그가 한시에 투영한 사유와 흥취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리학 명제에 대한 성찰과 사유이다. 그는 明德, 心, 性, 情, 體用 등 성리학 명제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시로 발현하면서 수양에 의한 철저한 도덕적 실천을 말함으로써, 단순한 사변적 관상철학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溪堂八景에 담은 處士 삶의 흥취이다. 그는 西學과 청나라 문물 유입의 시대 흐름 속에서 은거지 계당의 팔경을 읊으며, 학문 침잠으로 세도부지의 사명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도의 체찰을 징험하기도 한다. 셋째, 발상 전환의 재치와 유희이다. 이는 뜻밖의 사건이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분노하지 않고 재치 있고 인간미 넘치는 말로 표현하는 유희를 보인다.

정희찬의 온전한 모습을 정립하려면, 그의 성리설과 실학적 면모를 비롯해 동시대 고창지역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가 더 병행되어야 할 듯하다. 그 과정에서 고창지역 인물들의 학설과 노사 기정진의 학문 형성 사이의 영향 여부를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書經』

『莊子』

『朱子大全』

奇正鎮, 『蘆沙集』

陶潛, 『陶淵明集』

黎靖德, 『朱子語類』

鄭悔燦, 『溪堂集』

朱熹, 『論語集註』

朱熹, 『大學章句』

朱熹, 『孟子集註』

胡廣 등 撰, 『大學章句大全』

기정진 저·김경국 역, 『답문류편(答問類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오하마 아키라 지음·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_____,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4.

김현진, 「사계 김장생의 『대학변의』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학래, 「剛齋 宋樛圭의 학문 활동과 사상사적 위상」, 『울곡학연구』 55, 울곡학회, 2024, 173~204쪽.

(DOI : 10.35436/yulgok.2024.55..173)

이형성, 「奇正鎮의 고창지역 門人과 遺物遺蹟에 대한 一攷」, 『東洋古典研究』 79, 동양고전학회, 2020, 189~228쪽.

_____, 「小蠹 鄭河源의 生涯와 太極動靜에 대한 蘆沙學 繼承性 一攷」, 『온지논총』 75, 2023, 235~258쪽.

_____, 「寒洲 李震相의 ‘明德說’에 대한 理重視의 觀點 一攷」, 『東洋哲學』 44, 한국동양철학회, 2015, 323~344쪽.

(DOI : 10.19065/japk.44.201512.323)

| Abstract |

A Study on Gye-dang Jeong Hoe-chan's Academic Inclinations and Classical Chinese Poetry

Kim, Hyun-jin

a professor of academic research of Sunchon Univ.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life, scholarship, and literary aspects of Gye-dang(溪堂) Jeong Hoe-chan(鄭悔燦, 759~1831), who was active in the Gochang region of Jeollabuk-do during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After fail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Jeong Hoe-chan retired to Gye-dang-ri, where he built Gye-dang Pavilion(溪堂亭). There, he devoted himself to continuing his family's scholarly tradition, achieving academic accomplishments, and pouring his efforts into compiling genealogies to establish his family's reputation. He lived the life of a recluse, guiding his descendants with the “Ten Must-Not-Dos” (十毋) and “Ten Must-Dos” (十必).

His scholarship can be examined through three main aspects: the continuation of his family's academic tradition and mentorship rooted in the Wooam scholarly network, the inheritance of Yulgok's theory of Li and Qi, and the manifestation of practical Confucian thought focused on governance and utility. Particularly, Jeong Hoe-chan's Neo-Confucian theory, which understood Li and Qi as an integrative relationship, is believed to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Neo-Confucian theory of Nosa(蘆沙) Gi Jeong-jin(奇正鎭), who advocated for a monistic theory of L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y of Li and Qi. His views on the land system were likely aimed at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the Three Governmental Affairs (三政).

Jeong Hoe-chan also reflected his life and scholarship in his literary works. The thoughts and interests expressed in his Chinese poetry can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First, through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on Neo-Confucian propositions such as Bright Virtue, Mind, Nature, and Emotion, he demonstrated a rigorous practice of moral cultivation. Second, the poetic enjoyment found in the Eight Views of Gye-dang Pavilion(溪堂八詠) reflects his resolve for scholarly devotion, a sense of mission to remain indifferent to worldly affairs, and his effort to embody the Way through reflective study. Third, his wit and humor, often expressed through a change in perspective, reveal a playful and humane attitude, even in unexpected or difficult situations, opting for cleverness

and human warmth instead of anger.

Key words : Jeong Hoe-chan(鄭悔燦), Gye-dang(溪堂), Gye-dang Pavilion(溪堂亭), Gochang(高敞), Gi Jeong-jin(奇正鎭), Nohwa-seol(爐火說), the Eight Views of Gye-dang Pavilion(溪堂八詠)